

“입원치료 3주, 퇴원 전 2차례 검사해야”

광주시, ‘코로나19’ 환자 퇴원 기준 강화 검토

신천지 교인 확진자, 자가 대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음성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6일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퇴원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2주일간 병원 격리치료 뒤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면 퇴원 조치하고 있다. 이후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한 뒤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총 3주가 지나면 무증상의 경우 격리 해제되는 것이다.

광주시는 다만 신천지 교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병원퇴원 뒤 자가격리

대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A(30세 남성)씨도 2주간 병원 치료 뒤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무증상 상태에서 자가격리 도중 생활치료센터로 격리 조치됐다. 자가 격리 상태에서 외부 인과의 접촉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2차(회) 진단검사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음성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2주간 치료 뒤 1차 음성을 충족하고, 추가로 일주일의 자가격리하면 격리해제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다소 느슨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대구 등

에서 집단 발병이 잇따르면서 병상 등의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다만 신천지 교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나서고 있다. A씨에 대해서도 확진 판정 후 3주째인 지난 11일 격리해제에 앞서 최종 검사를 했는데 예상을 깨고 양성판정이 나왔다. 광주시가 만약 정부 지침에 따라 추가 검사없이 A씨를 격리해제 했다면, 추가 접촉에 따른 또 다른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광주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신민호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A씨 사례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나 재감염이라기보다는 보건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완전한 음성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검사 결과 음성과 양성 경계를 오가다가 결국 양성 판정이

나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통상 2주일 이상이면 바이러스가 소실되지만, A씨는 3주일 이상 유지되는 다소 특이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일을 3주 이상으로 늘리거나, 퇴원 전 2차(회)의 진단 검사·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도 “앞으로 신천지 교인은 물론 모든 확진자에 대해 의뢰해 조인대로 두 차례 검사를 하고, 모두 음성이 확인돼야만 퇴원 시키는 등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퇴원 후 일주일간의 격리기간이 끝난 시점에 최종 확인 검사를 추가하는 등 강도높은 확진자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가격리 생활폐기물 수거 12일 오후 광주 남구청 환경생태과 폐기물관리팀이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자들이 집 밖으로 내놓은 생활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있다. 수거된 생활폐기물들은 소각처리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개학 연기 속단 어렵다”

유은혜 장관, 23일로 준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점검을 위해 찾은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에서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추가 개학 연기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며 “우선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가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공기가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동안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장치 사용법과 표시되는 각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게 교육적으로 좋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각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를 살펴보고 급식 조리실과 보건실, 돌봄교실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유 부총리는 이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매탄초 돌봄전담사, 학부모 대표 등 10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세계 110개국·12만명 감염…WHO, 전염병 최고 경보

유럽·미주 지역까지 확산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격증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이후 불과 70여 일 동안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 국가도 110개국에 훌쩍 넘었다. 특히 이 같은 피해가 아시아를 넘어 향후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자 더는 팬데믹 선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국도 3배 늘었다”면서 “현재 114개국에 11만8000여 건이 접수돼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몇주 동안 우리는 환자, 사망자, 피해국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WHO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억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11만8000여 건의 확진 사례 가운데 90% 이상은 4개국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서는(코로나19) 상당한 수준의 감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1개국은 어떠한 사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57개국은 10건 이하의 사례를

보고했다”며 “모든 나라는 이번 팬데믹의 진로를 여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공중 보건, 정치적 리더십, 사람들” 등 네 가지 단어가 팬데믹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각국에 적극적인 대처와 연대를 주문했다.

WHO는 현재까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등 두 번만 팬데믹을 선포했다. 새로운 질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뜻하는 팬데믹은 WHO가 지난 2009년까지 사용한 전염병 위험 수준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WHO는 과거 사람의 감염 위험이 낮은 상황(1단계)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지속적인 전파가 발생해 증가하는 상황(6단계)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신천지 고위험군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22일까지 107곳 폐쇄 명령

전남도가 지난 11일자로 신천지 교인(교육생 포함) 중 고위험군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4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11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진단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내 신천지 교회 및 부속기

관 107곳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 신도 1만654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통보한 신천지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해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불응자 및 방해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시설, 경로당, 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총 4200여 개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고, 집단생활시설을 대상으로 ‘1:1 전담공무원제’를 시행중이다.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콜센터, PC방, 스포츠센터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등 코로나 19 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각 관할 보건소에서 환경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일 광양에서 4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11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4명의 확진자(1명 퇴원)와 접촉했거나 확진 가능성이 있는 1333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으며, 37명이 11일 현재 자가격리중이다. 전남도내 국립나주병원, 사군 정신건강보건의센터는 자가격리 확진자 및 퇴원자 170명에 대해 심리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럽 5개국 출발 여행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5개국 외 출발 일반검역

이달 15일 0시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발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등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발 여행자를 통한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나라 5개국에 대해 강화된 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양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형태로 확산함에 따라, 유럽 내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가 새로 적용되는 나라는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5개국이다.

이들 5개국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1대 1로 발열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서서를 내야 한다.

또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기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다’는 보고를 하면 보건소가 의심환자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를 안내한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장은 프랑스 등 5개국을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인데, 이들 3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주요 공항이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를 통해 입국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우선 5개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럽 5개국을 출발해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중국은 2월 4일부터, 홍콩·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3월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3월 12일부터 적용됐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금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 볼.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제32기)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9년12월31일현재) (단위: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유동자산	22,083,716,685	I. 유동부채	28,720,191,975
(1) 당좌자산	20,506,552,538	1. 매입채무	2,625,454,633
1. 현금및현금성자산	7,071,099,612	2. 미지급금	3,559,911,820
2. 단기금융상품	4,800,000,000	3. 단기차입금	10,700,000,000
3. 매출채권	7,856,292,050	4. 선수금	7,841,174
4. 미수권	124,619,914	5. 예수금	121,115,404
5. 선박대리점	46,382,556	6. 미지급비용	1,442,067,266
6. 미수수익	11,628,248	7. 미지급법인세	1,867,913,253
7. 선금	160,439,966	8. 미지급배당금	9,982,800
8. 선금비용	340,527,531	9. 선수수익	215,959,646
9. 기타의당좌자산	80,918,110	10. 유동성장기차입금	4,728,765,000
10. 이연법인세자산	15,644,551	11. 현재가치할인차금	(871,548)
(2) 재고자산	1,577,164,147	12. 유동성장기미지급금	3,632,261,946
1. 재고품	1,577,164,147	13. 현재가치할인차금	(696,838,089)
14. 임대보증금	496,750,000	15. 파생상품부채	10,878,670
II. 비유동자산	88,381,790,347	II. 비유동부채	34,728,902,425
(1) 투자자산	1,869,282,698	1. 장기차입금	18,676,655,000
1. 장기금융상품	1,744,282,698	2. 장기미지급금	17,219,829,393
2. 매도가능증권		3. 퇴직급여충당금	2,958,462,529
(2) 유형자산	83,194,085,643	4. 비유동채상충부채	19,513,991
1. 토지	1,386,085,205	부채총계	63,449,094,400
2. 건물	3,240,824,475		
3. 선박	156,089,659,565		
4. 가세권등기부담	20,687,054,287		
5. 감가상각누계액	(20,687,049,287)	자본	5,200,000,000
6. 감가상각누계액	(112,670,823)	I. 자본	5,200,000,000
7. 감가상각누계액	(112,670,823)	1. 보통주 자본금	
8. 기구비	642,879,280	II. 자본잉여금	1,089,290,269
9. 감가상각누계액	(612,185,259)	1. 기타타본잉여금	1,089,290,269
10. 중량물운송장비	4,848,369,929		
11. 감가상각누계액	(4,848,368,925)	III. 기타무형자산	666,206,600
12. 건설중인자산	3,200,000,000	1. 매도가능증권가치이익	666,206,600
13. 하역장비	13,032,164,913		
14. 감가상각누계액	(7,021,366,295)		
(3) 기타비유동자산	3,316,422,006		
1. 보통주 자본금	2,053,988,208		
2. 이연법인세자산	1,264,433,798		
자산총계	110,465,507,032	부채와자본총계	110,465,507,032

위약금이 공고함.

2020년 03월 13일

광양선박주식회사
각자대표이사 김혁근, 이경희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32분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우모